

고물가로 생활비는 물론 외식비까지 치솟으면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할인 마트보다 싼 물건을 찾아 동네마트를 헤매고,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고 플랫폼으로 중고차량까지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할인을 높은 물건 찾아 동네 마트 삼만리= 더 싼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 할인 마트를 찾기 보다는 동네마트를 찾는 지역민들이 있다.

고물가에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보다 수백원에서 수천원까지 싼 물건을 찾기 위해 동네 마트를 도는 것이다.

2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동네마트 매대에는 할인을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우유 900ml 2개 묶음은 3980원이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같은 우유를 618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집 근처 마트에 아이들 간식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은 이성희(여·53)씨는 "대형마트가 할인을 한다고 하지만 동네마트보다 비싼 물건도 있다. 식자재는 동네마트가 더 저렴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네마트도 할인이 높고 포인트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도 가까운 동네마트가 더 이득이다. 인터넷은 여러개 묶음으로 사게 되거나 배송비를 맞추다보니 안살 것도 사게 돼 돈을 더 쓴다"고 덧붙였다.

인근 서구 화정동의 동네마트에는 입구와 안쪽 매대에 손글씨로 쓴 할인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이곳에서 3950원에 판매되고 있는 카놀라유 500ml는 대형마트에서는 5480원이다. 대형마트에서 1만 600원에 파는 참기름 320ml병도 6500원

에 판매되고 있었다. 할인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맘 카페도 인기다. 이날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온라인 쇼핑몰보다 싸네요.', '계란, 딸기 사러 가야겠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과 비교해 싼 물건들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해 할인이 높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동네마트를 도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한 대형마트 직원 김선주(46)씨는 "아파트 근

SUV 중고차량이 매물로 올라왔다. 중고차의 경우 고가에 해당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어려워 그동안 중고차 딜러를 통해 거래돼 왔지만 이제는 중고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까지 거래되고 있다.

중고차 딜러를 통한 경우 딜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이트에는 딜러에게 구매할 경우보다 86만여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부동산과 구인모집 광고까지 중고플랫폼에 올라오고 있다. 공인중개사나 구인광고 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고 플랫폼에 가구점 구인광고를 낸 김모(51·광주 서북구 양산동)씨는 "당근마켓이 가장 수수료도 저렴하고 일부 무료로 광고가 가능하기도 해 자주 이용한다"며 "이외에도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의 반응을 얻을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웃어보였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힘겨운 고물가... '짠테크' 눈물歌

생활비 아끼자... 대형마트보다 할인 더 받는 동네마트로 수수료 아끼자... 자동차·구인·주차권 등 중고 플랫폼 이용



봄장날 바자회 21일 광주시 북구 유동 광주YWCA 회관 1층에서 '탈핵기후생명운동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이라는 주제로 20일부터 진행된 봄장날 바자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과거사 소멸시효, 진상규명 결정 후 시작”

광주지법, '화순군경 민간인 희생' 유족 일부 승소 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적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한국 전쟁 시기 화순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유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8000만원, 처와 자녀들에게 각각 800만~4000만원 등의 위자료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화순 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A씨가 1950년 11월 17일 마을 뒷산에

서 땀나뭇나무를 지고 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지난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삼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경찰에 의해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소멸시효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22년 6월부터 시작 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화학물질 누출 사고 '전국 3위'

2020~2022년 전국 688건 발생 전남 62건...원인물질 1위 '수은'

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최근 국내 화학사고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3년 동안 전국에서 총 688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62건 발생해 경기(158건), 인천(72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고가 많았다.

광주는 6건으로 세종(2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발생 건수가 적었다.

화학사고로 인한 전국 사상자는 496명이었으며, 각각 사망 38명, 중상 70명, 경상 388명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경상 26명, 중상 7명, 사망 7명 등 총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경기(125명), 울산

(72명), 인천(48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에서는 수은(68건·1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염화수소(63건·9%), 암모니아(40건·5%), 황산(30건·4%)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8월에 87건으로 사고가 가장 잦았으며, 4월(76건), 7월(68건), 6·9월(60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많아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조철희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사고 예방대책 수립·안전 관리 수칙 준수 등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대상포진 무료접종 실시

광주 남구, 25일부터

광주 남구는 25일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종 비용은 12만~15만원에 달한다. 다만 면역력이 없거나 면역 억제 요법을 받는 어르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어르신, 젤라틴과 니오마이신 등 백신 성분에 중증 과민 반응을 보이는 어르신, 에이즈와 결핵환자 등은 제외된다.

남구청 건강증진과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장 사문서 위조 '혐의 없음'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당했던 광주시 산하기관장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광주시 산하기관장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장의 동생 B씨는 'A씨가 내 인감을 도용해 부모님이 몰려준 토지를 명의 변경하고 매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인감을 사용하기 모든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B씨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반려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료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드스트리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